

• 지상 설교 •

무너진 데를 수보(修補)하는 자

— 이사야 58:12 —

정 학 봉

- 서울 제자훈련원 원장
- 대신대학 신학부 교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秩序, cosmos)의 세계를, 추하고 혼돈(混沌, chaos)한 세계로 전락시켰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무너진 기초 위에 그냥 집을 지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대가 될 “네게서 날 자들”이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보수하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1. 역대의 파괴된 기초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를 불신앙의 역사로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에서 자아(自我) 중심의 세속적 인본주의(世俗的人本主義, Secular Humanism)의 삶의 자세로 전락하였습니다.

(1) 파괴된 신앙적인 기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形像, The Image of God)으로, 인격자(人格者, A Person)로 지음받은 것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로 지음받았으므로 피조물의 입장에서든 하나님과의 사귄이 가능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보려는 허망한 탐심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안목은 닫혀졌고 육적인 “눈이 밝아”(창 3:7)져서 하

나님 중심에서 자아 중심 사상으로 전락하여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게” (롬 1:23)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무속적 기복 신앙(巫俗的祈福信仰)을 추구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기초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2) 문화적인 기초의 무너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적인 뜻에 순응하는 것이 진리요 질서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이탈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자신을 절대화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헬라식 인본주의는 그들의 지나온 발자국으로서의 문화적인 유산도 그 기초부터 무너진 상태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혜를 다하여 연구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 속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인본주의 문화의 기초가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 사역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수축하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사역의 직접적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 신약 교회의 과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류 구원 사역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지상 명령(至上命令, The Great Commission, 창 12:1~3)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들의 율법주의 민족

종교(律法主義 民族宗教)로 발전시킴으로 하나님 사역에서 탈락되었고, 그 인류 구원 사역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新約教會, New Testament Church)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 인류 구원 사역의 사명을 맡은 신약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원형 교회(原型教會, Primitive Church)를 말합니다.

(2) 기초를 재건하는 역사

그러므로 오늘의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지녔으며, 이를 위하여 기초부터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의 체험은 많은데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여 무너지고, 신학적인 이론에는 밝은 것 같으나 기초 신학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기초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도 종교의 양식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는 이 무너진 기초 신앙을 재건하고, 기초 신학을 재정립하고 그 위에 훌륭한 체험적인 신앙과 학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혼돈의 추한 세계로 전락하게 되었고, 기름진 땅들이 황무지로 화하게 만들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증오의 세계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은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로, 황무지를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증오의 세계를 사랑의 세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1) 길을 수축

사람들은 외관상의 결실들을 기대하며 일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으면 다 훌륭한 것이고, 실적이 적으면 다 소홀한 대우를 받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실적을 올려도 그 기초가 약하거나 파손되었으면 그 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는 감각적인 느낌이나 물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실용주의적인 사상에서 물량에 의존하는 허구적인 신앙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의 자아 중심주의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로 수축하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 생명의 길

신앙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人間理性)으로 조작해 낸 영적인 사역의 모방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를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전 1:21)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성 중심의 이해를 전재로 하는 모든 이론이나 생활은 사람들의 동의는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에의 헌신자들로서 역사 이래로 세속적인 문명에 물들었던 신앙의 세속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과 순수한 복음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사역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의 오염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고 보수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명에 대한 다짐이 필요한 시대이며,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꾼들의 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